



12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이혜은 연구원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011년 12월 8일 기준금리를 현행 3.25%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이는 금년 6월에 0.25% 포인트 인상 후 6개월 연속 동결임.**
 - 이번 금리 동결 배경은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유로재정문제 등 대외경기 불안으로 국내 경기의 하강압력이 커졌기 때문임.
 - 국내 경제여건이 악화된 건 사실이지만 장기 추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Mild Recession(완만한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낮고, 물가 상승률의 완만한 둔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기준금리 정상화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시사함.

- **세계 경제의 회복세는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지역의 국가채무위기, 주요국 경제의 부진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됨.**
 - 유럽재정위기는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및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글로벌 재정 안정의 구원책으로 여겨지던 유럽연합 정상회의에도 유로존의 위기에 대처할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임.
 - 미국의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 경제가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신흥시장국 경제의 성장세도 다소 약화되어 앞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경제는 장기추세 수준의 성장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해외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높은 상황임.**
 - 유럽 재정위기와 선진국 경기 둔화 등으로 잠재성장률과 기준금리의 중립수준이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기존에 금리인하를 단행한 국가들과 달리 국내 경제는 Mild Recession 상황이 아님.

- 수출은 꾸준한 신장세를 나타내었으나 소비가 전월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함.
 - 1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비 4.2%, 근원물가가 3.5% 기록하여 여전히 물가가 높은 수준임.
 - 앞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 및 기저효과 등이 물가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공공요금 인상,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등으로 물가상승률의 하락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됨.
- 전문가들은 유럽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의 내년 상반기 양상과 그에 따른 국내 경기의 영향에 따라 동결 기조로 흐르고 있는 기준금리의 변수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내년 상반기 우리 경제가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경기 악화로 수출둔화 등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면 내수부양의 필요성에 의해 금리 인하가 대두될 것이라는 의견과, 유럽 재정위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내년 초까지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국내 타격이 덜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음.

(통화정책방향 등, 한은, 12/08)